



3면
당정 "코로나19 추경
메르스보다 확대"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3월 3일 화요일 (음 2월 9일) 제2486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道, 자체 조사에서 신천지 더 드러나

정부 명단 보다 도민제보로 1865명 접수 추가 확인 11곳과 함께 74곳 강제 폐쇄

전북도는 도내 첫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즉각 대응팀을 꾸려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정부 제공 신천지 명단 전수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신천지 관련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추가 명단 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도민 제보를 통한 신천지 신고 명단과 시설 추가 확인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2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신천지 신도 A씨(26·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즉각 현장대응팀을 꾸리고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에 대한 심층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전주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며, 28일 발열(37.3℃)이 있어 지난 1일 전주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받고 2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군산의료원에 입원 치료 예정이며, 전북도는 A씨의 부모와 남매 등 4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가족 모두를 자가격리 조치했다.

전북도는 A씨 등을 포함한 정부 제공 도내 신천지 명단 1만3260명과 가족들을 조사한 결과 3월 1일 18시 현재 유증상자 278명을 파악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확진자는 1명(3월 2일 11시 기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기준 신천지와 관련해 감염 의심자로 확인된 인원은 모두 278명으로 신고 본인 240명, 신도 가족 38명이다.

시군별로는 전주 118명, 군산 88명, 익산 29명, 정읍 13명, 남원 7명, 김제 10명, 완주 7명, 고창 2명, 부안 4명이다.

이 중 83%인 231명을 검사해 18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48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47명은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도내 신천지 신도 명단 중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된 인원은 69명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전주 37명, 군산 8명, 익산 15명, 정읍 1명, 남원 1명, 김제 1명, 완주 6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1명이 증상이 의심돼 6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1명

은 검사 예정이다.

전북도는 정부 제공 신천지 명단 1만3260명 중 1만2866명(97%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 394명에 대해서는 경찰 협조를 통해 모두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신천지 신도는 564명이었으며, 전북도는 경찰 협조를 받아 이 중 110명을 파악했고, 60명도 추가로 통화 연결했다.

이로써 2일 현재 전화 통화가 안 되는 사람 102명과 응답을 거부한 사람 292명 등 총 394명이 남아있는 상태.

이 중 통화 연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37명을 제외한 357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아울러 각 시군과 함께 증상이 없다고 답한 신천지 신도 1만 2626명에 대해서도 매일 전화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한편, 전북도는 정부 제공 명단 이외에 도 차원의 신천지 추가명단 확보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도민들의 전화 접수를 받아 198명의 명단을 확보, 11명 신도를 추가 확인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27일 주변의 신천지 교인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이후 지난 1일까지 모두 1865명에 대한 제보 전화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를 정부 제공 명단 1만 3260명과 대조해 중복된 1667명을 제외한 추가 조사대상 명단 198명을 확보했다.

도는 전화 제보를 통해 확보한 추가 명단에 대해 도청 상황실에 전달받을 구성해 직접 코로나19 증상을 확인했으며, 29일 오후 7시 기준 198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전화조사 결과 응답한 74명 중 감염증상이 있다고 답한 이는 없었으며, 신천지 신도는 11명이 추가 확인돼 2주간 증상 유무를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나머지 인원 중 50명은 전화를 받지 않고, 5명은 응답을 거부했으며, 인적 사항 불일치 및 결번 등이 69명으로 조사됐다.

응답한 인원 중 대구·경북지역을 다녀온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또 신천지 관련 시설로 의심되는 장소 44곳에 대한 제보를 받아



책상 소독하는 초등학교 교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의 학교가 휴업한 2일 전주동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미루어진 개학을 앞두고 살균제로 학생들이 사용할 책상을

현장조사에 나서 점음과 악산 등 두 곳을 신천지 시설로 추가 확인하고 강제폐쇄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로써 도내에는 신천지가 밝힌 교회와 부속시설 63곳 외에 전북도와 각 시군이 제보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한 11곳 등 모두 74곳이 폐쇄됐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신천지 시설을 추가 확인해 폐쇄조치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 소방본부, 코로나19

특별관리구역에 구급차량 지원

전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에 다수환자 이송을 지원하기 위해 119구급차량 5대를 긴급 지원했다.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것에 따라 소방청장이 5개 시도에 구급대 등 추가 동원령을 발령한 데 따른 조치로 긴급지원 한 것이다.

동원된 5개의 구급대는 대구 및 경북지역의 코로나19 의심환자 등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김진성 기자

도내 유·초·중·고 개학 2주간 더 연기

9일에서 23일로 미뤄져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간 더 연기된다.

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해 2차 개학연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 소속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증 평생교육 시설의 개학일이 당초 9일에서 23일로 미뤄졌다.

이는 학생 감염 위험 및 가족·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 코로나19의 잠입이 3월 첫째주 주말로 예상되면서 3월 셋째주까지 전국단위 학교의 휴업이 필요하다는 보건당국과 교육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3주간의 개학 연기에도 휴업일수는 15일로 우선 여름·겨울방학을 조정, 운영할 계획이다.

3월 2~3주에는 온라인 학습지원 계획을 수립, 온라인 학급방 개설 등을 통한 수업과제 제시 및 학습 피드백 등을 제공한다. 또 온라인을 활용한 학생상담 등 생활지도도 한다.

/장은성 기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 대규모 감염병에 효율적

전주시,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신천지 교인 대상으로 운영

다른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신분 노출 가능성 줄어들어

전북 7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진료를 받은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방식이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효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시는 2일 '코로나19' 대응 상황 브리핑에서,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의심되는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별진료에는 의사 15명과 전주시보건소 직원 39명, 전주시청공단 직원 10명, 경찰 4명 등 총 68명이 투입됐다. 시는 예수병원, 대자병원, 전주병원, 덕진진료실 등에 선별진료소가 있지만 신천지 신도 진료가 원활하지 않다고 보고 드라이브 스루 방식

을 도입했다.

드라이브 스루 진료는 감염의심자가 차에 탑승하고 창문만 내린채 의료진 면담, 체온측정을 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과 신분 노출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당초 시가 예상한 인원은 200명가량이었으나 실제로 차를 타고 와서 검체 채취에 응한 신도는 305명이었고, 그 가운데 한 명인 군산 모 대학 휴학생인 A씨(26·여)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전주 종합경기장 드라이브 스루 진료를 통해 검체 채취에 응했으며,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아 군산의료원에 격리 입원 중이다.

이에 따라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신천지 신도들

에 대한 효율적인 진료 수단이 될 것 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6일 전주(팔복동)의 한 신천지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함께 탑승해 검사를 실시한 아버지와 지난달 28일 검사한 어머니는 음성으로 판명됐으며, 함께 거주하는 언니와 남동생은 긴급히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한 채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주차장 하지 않아도 꽤 편리한 데다 신분 노출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운영했다"며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신도를 대상으로 했지만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 추가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LukioTV

NAVER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